



현대불교 연중케임

##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쳐시다

### 고증없는 건축불사

758년 발명이 증간해 열불만일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으로 우리나라 만일회의 효시가 된 사찰 건봉사. 그 건봉사가 고증없는 복원불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0년부터 98년까지 28억원을 들여 대웅전 팔각전 등 복원과 29건의 문화재 정비 등이 정밀 지표조사와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기단석 및 석축 살기가 네모형과 마름모형이 뒤섞여 있고 연지의 경우 연못 중심을 통과하는 영월교에 석조간간이 설치돼 있었다. 일제 때 촬영돼 90년 발간된 건봉사지 지표조사보고서 화보에 실려 있는데도 복원 설계에는 빠져 있을 정도로 정확한 고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전통사찰로 그 역사와 유래가 깊은 건봉사가 고증이 부실해 복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정도로 사찰 복원불사가 전문가의 감수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화재 조사도 중요하고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사찰을 짓고 고치면서 점차 전통적인 불교건축이 어떤 것이고 각 사찰의 원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고증하지 않는다면 사찰 훼손은 물론 문화재적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찰건축 고증팀을 종단 전문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우면 국립박물관이나 각 대학박물관과 연계해 복원에 들어가기 전에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헌자료 조사부터 확실하게 다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사찰 복원시 문헌 검토와 정밀 지표조사가 선행될 때 이번 건봉사 복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헌자료와 복원설계가 다른 상황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황룡사 같은 사 등 오래 전에 유실된 사찰과 한국전쟁의 와중에 훼손된 사찰 등 복원해야 할 사찰들은 많이 있다.

복원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발굴조사와 철저한 고증이 선행돼 복원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 직장직능 불교단체 3년새 두배

## 96년 184곳서 현재 350곳 실행활동 회원 소극성-재정·법사부족 여전

조계종 포교원 현황조사 최근 속속 결성되고 있는 것으로, 96년 이후 경북도청불자회 등 23개 단체가 창립했다. 또 3백50여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9%의 단체가 94년 조계종 종단개혁이후 창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의 영향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와 관공서, 정부투자기관의 불자회가

실시한 것도 창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19일, 20일 서초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직장직능신행단체 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직장직능 신행단체 현황과약을 통해 밝혀졌다. 96년 조계종 중회 포교본부위원회가 실시한 현



## 올 광복절 통일기원법회 열자

서울·평양 불추위 대표단 조불련과 합의...문화재 남한전시 등 논의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지역에서 남북의 불자들이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조산불교도연맹(조불련, 위원장 박태화)의 초청으로 북한을 공식방문한 민족화합불교추진위(불추위) 방북대표단 단장 지선스님을 비롯 성조스님(조계종 사회부장)과 유지원(불추위 사무총장) 김기창(보광사 신도회장)씨 등 4명과 조불련 심상진 서기장은 2백여명의 북한불자들은 12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하고 민족의 통일을

함께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지선스님이 법어를 했으며, 성조스님과 최영민 신사(보현사주지)는 "민족교류협력과 화합,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불자의 원칙과 실천행동을 펴자"는 발원문을 함께 낭독했다.

8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16일 귀국한 불교추진위 대표단은 2차례 조불련과 남북 불교도회담을 갖고 남북불교간 인적교류, 학술교류, 문화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문화재의 남한전시 등 문화재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후속 실무자임을 진행키로 했다.

또 8월15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의 불자들이 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동시에 봉행하여 이때 공동발원문도 낭독키로 합의했다. 불추위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평안남도 광암사 법운암 용화사와 묘향산 보현사 상원암, 사리원 성불사 등 6곳의 사찰을 방문하여 주지스님들과 면담했으며, 불자들의 실행생활과 문화재보존 현황도 파악했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보현사서 남북불자 합동법회

○남북의 불자들이 북한지역의 사찰에서 최초의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후 불추위 대표단과 북한불자들이 보현사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22일~24일, 에버랜드·사찰서 2박3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들을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봉나무장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맛지고 신나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란다.

- ◇일 정: 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봉나무집 1박)
  - ◇장 소: 용주시 신록사 외우정사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 ◇참 가 비: 5만2천원
  - ◇문 의: 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 포교원·직장종 불리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불교조각원

## 행자교육 1년으로 연장

조계종 교육법개정안 마련...행자교육원 연 1회 개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행자교육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교육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은 행자교육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1년에 두 차례 개설하는 행자교육원을 연 1회 실시하는 방안 등이다. 또 행자교육원 수확연령을 현행 15세이상 50세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조정하고 학력은 고졸 이상을 필수로 정했다.

교육원은 이밖에도 승려법 계단법 선원법 등 승가교육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교육원회의를 통해 확정된 교육법 개정안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와 협의 후 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남북분쟁 지혜롭게 극복하자"

고산스님등 종교지도자 서해교전관련 성명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16일 오찬모임을 갖고 남북간 시해교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성명에서 "지난 십여년간 서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군사적 충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남북은 분쟁을 자제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족의 화해와 행복을 위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분단극복에 더욱 정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원불교 이공정 총법사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고산스님과 원주 전 조계종총무원장, 조경근 원불교 교정원장, 김용국 천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김홍은 신부(전 종교인평화회의 회장), 김동완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양인민족종교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 중앙승가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가 한국불교 최고 지성의 산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동림산업(주) 임직원 일동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한 기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림산업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공사개요 -  
 공사기간: 1997년 8월 25일 - 1999년 6월 30일  
 공사금액: ₩32,848,274,000원(1999년 5월 현재)  
 연 면적: 53,000평  
 건축면적: 9,277평  
 (대학본관1동, 교수회관1동, 강의동1동, 수련관2동)